



학사다이어리 - 휴·복학생 의료회비 납부 안내

기간 : 3월 31일까지  
금액 : 학부생 13,000원, 대학원생 15,000원, 전문대학원생 20,000원  
납부장소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 Zone  
※ 휴학 시 납부한 의료회비는 복학시의 학기로 이월 되지 않습니다



빈 자리 하나 없이 뻥뻥한 강의실. 대형 강의가 이번 학기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다

## 대형강의, 2013 대비 20배 증가

(100명 이상) (서울캠퍼스)

### 대형 강의 확대 논란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행정실에 따르면, 2014학년도 1학기에 1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배분이수·자유이수 대형 강의(온라인 강의·체육교과 제외)는 58개 강좌다. 이는 전년도 1학기의 3개 강좌에 비해 20배 가까운 수치다.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에는 신입생세미나 과목을 제외하면 100명 이상 대형강의는 없었으나 이번 학기에 6개 강의의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대형 강의가 이번 학기 들어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 배경에는 대학이 처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행·재정 발전계획안(발전안)'의 후마 개설 강좌 조정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시행년도인 2014년부터 약 400개의 후마 강좌를 조정할 예정이며, 이번 학기에는 2013-1학기 대비 서울캠퍼스 103개, 국제캠퍼스 105개 강좌가 축소돼 총 208개 강좌가 조정된 상황이다.

발전안에 따른 예산 조정의 경우 후마를 비롯한 대학본부 부서들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조정 목표의 절반 정도만 달성한 상황이므로 올해 2학기에도 추가적인 강의 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편 전체 강좌 수가 양 캠퍼스 모두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강의의 정원은 100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100명 이상 대형강의	
서울	국제
37개 (2013 → 58개 (2014))	0개 → 6개
후마 강좌 조정 현황	
서울	국제
103개 축소	105개 축소
전체 수강 인원	
서울	국제
25,864명 → 27,408명	27,546명 → 28,172명

국제캠의 경우 2013-1학기 25,864명에서 이번 학기 27,408명으로 늘었고, 국제캠의 경우에도 27,546명에서 28,172명으로 늘었다.

전체 강좌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강인원이 증가한 원인은 강의 최대 수강인원 조정이 있었다. 서울캠 후마 행정실 유재홍 실장은 "강좌 수가 축소되더라도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희망과목담기에서 수요가 높은 강의의 배정 인원을 확대했다"며 "특히 졸업을 위해 의무적인 교과의 경우 수강 인원을 전체적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핵교과, 글쓰기1·2, 영어1·2의 경우 강좌당 수강 인원이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늘었고, 교과목 개설기준도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강의 수 축소로 인한 대형강의 증가에 대해 학생과 교수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성순(경영학 2014) 군은 "용무가 있

어 일어나야 할 때는 한 책상의 모든 인원이 일어나야 하기에 괜히 눈치가 보인다"며 "지난 시간에는 출석을 부르고 공동 구매한 교재를 나눠주는 데 30분 가량이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준기(국어국문학) 교수는 "U-Class가 설치돼 있는 강의실은 출석 부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설치된 강의실이 더 많다"며 "이 밖에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찬 강의실이 아닌 일방적인 '강연'만이 진행될까 염려스럽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현재 130명 이상의 대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 강의시수의 1.5배를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물론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한으로 조정된 결과"라고 밝혔다.



### "구성원 신뢰 회복이 최우선"

이정우 기자 cyanizm@khu.ac.kr

지난달 1일 국제캠퍼스(국제캠) 부총장으로 이승한(응용화학) 교수가 임명됐다. 캠퍼스 부총장이 해당 캠퍼스에 속한 구성원과 대학본부, 더 나아가 총장과의 중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총장은 올해 매우 막중한 책임을 맡은 셈이다.

이번에 임명된 이 부총장은 과거 중앙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다만 지난 2013년도부터 부총장으로 임명된 올해 2월까지 안식년을 가진 데다 지난 9월까지 외국에 머물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일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그가 우리학교의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부총장은 이같은 구성원의 우려에 대해 "부총장 자리에 오르고 나서야 상황을 직접 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외부에 있을 때에도 매체로 소식을 접했고 과거 보직에 오래 있었던 만큼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했다"고 답했다.

올해 우리학교가 앞두고 있는 큰 사업은 행정·재정계획과 SPACE21이다. 뿐만 아니라 등 록금 재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내 구성원과 대학본부와의 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캠은 서울캠에 비해 이과계통의 전공이 많이 위치해있는 만큼 우리학교 재정 어려움이 올해 연구분야 예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 부총장은 "현재 예산은 각 부서별

로 기본 운영비만 지급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단과대학 예산은 우선적으로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구분야 예산이 축소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 부총장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분위기인 만큼 축소될 수 있기는 하나 가능한 적게 줄일 것"이라며 "대신 신인 교수 지원, 신진연구 지원 등을 통해 (축소된 부분을)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총장은 SPACE21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국제캠 SPACE21은 아직 설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는 "연구 분야를 이야기하면 예산만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계획된 대로 2016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TF 등을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다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캠 부총장 교체는 우리학교 내부 정적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에 이뤄진 만큼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 부총장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에 대해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구성원의 기대가 많이 깨졌는데 이것이 무관심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시행하겠다. 부총장으로 임명되는 날 총장에게서도 소통을 중히 여기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장이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대학·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 부총장의 어깨에 기대를 걸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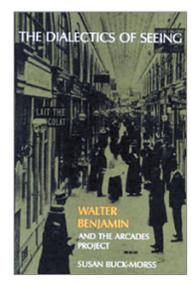
## 자본주의 사회의 산책자 :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교전의 사계 ⑧

고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학교-학원-집, 학교-학원-집.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일상이다. 대학에 들어와도 똑같은 패턴의 삶이 반복된다. 단지 목표가 수능에서 취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취업에 성공해 회사를 다니면 삶이 달라질까? 회사-집, 회사-집. 역시 마찬가지로 단조로운 삶이 반복된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일상은 사람들을 권태로 이끈다.

권태에 찌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일탈은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환호하고, 나이가 들면



문제는 우리를 얽어매고 부추기는 자본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이다.

값비싼 명품을 좇으면서 권태로운 일상을 잊으려 한다.

핑클과 소녀시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난 십 수 년간 수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실상은 '반복되는 새로움'일 뿐이다. 루이비통과 샤넬이 매년 발표하는 신제품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상품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포장만 바꾼 것이며 사람들은 반복을 새로움으로 착각한다. 우리는 늘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같은 것에 열광한다.

처음에는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품을 소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권태로운 일상을 가까이 받아들이게 된다. 높은 연봉을 원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은 고된 취업 준비에 뛰어들는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제시하는 삶의 패턴에 자신을 종속시킨다. 스스로 욕망하는 법은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생산하고 저항하는 욕망 대신에 자본이 제시하는 소비의 욕망만을 욕망하게 된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대학주보는 학내 사안, 대학가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주보 이메일 (khunews@khu.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 시선

## 사설 지방학생 '주거권' 불모잡는 임대업자

대학생의 주거문제는 등록금문제와 함께 대학가에서 항상 주요하게 논의되는 대상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평균비용은 연간 484만 원에 달한다. 이는 주거비만 계산한 내용으로, 그 외의 공과금이나 식비 등까지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 대학에 공적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주어 기숙사수용률을 높이기도 유요하고 있다. 우리학교가 이번 학기 신축한 이문동 기숙사와 회기동 기숙사 역시 지난 2012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가능했고, 향후 SPACE21사업과 연계해 서울캠퍼스(서울캠) 대운동장에 기숙사 한 동 역시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 문제와 직결되는 우리학교의 기숙사사업에 대해 유독 반대를 부르짖는 일부 이익집단이 있다. '회기동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라는 이름의 이 집단은 회기동 인근에서 원룸·하숙사업을 하는 임대업자

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기숙사 건립이 진행될 경우 본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우리학교가 소위 '공생'을 위해 기숙사 규모를 축소하고 임대시장에 발생할 공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정작 우리학교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해 온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측의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자치위원회 측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며 '기숙사 설립을 통해 주변 상권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기숙사 건립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진정한 '공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한다. 자치위원회 측에서는 향후 학내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소통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발전협의회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항의와 실력행사를 통해 본인들의 이런 행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발전협의회 측의 모습은 그들이 걸로 내세우는 '공생'이라는 미명과는 달리,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해보지도 않은 채 그저 학교와 학생들에게 '기생'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우리학교 주변의 하숙·자취 등 임대상권에서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오직 기숙사 신축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인식이다. 현재 서울캠의 전체 기숙사 수용인원은 고작 1,500명 수준으로, 이는 수용률로 환산 시 불과 10% 내외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구나 그동안 기숙사생 선발에서 경인지역 거주학생은 지원조차 할 수 없었는데, 매년 새로 입학하는 경인지역 거주학생 비율이 60%에 달함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기숙사의 혜택을 입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의 자취나 하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학교 인근 임대상권이 열악한 시설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통학을 선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주변 임대업자들은 최

근 공실률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월세를 평균 3만 원 가량 인상하며 가격경쟁력 상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도리어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캠퍼스 인근의 하숙·자취 등 임대상권에 대한 전 방위적 실태조사를 진행해 현재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내는 한편,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절실한 기숙사 건립문제의 당위성을 구청을 비롯한 유관 정부기관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에게 기숙사는 '집'이다. 법적으로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 '삶의 공간'을 캠퍼스 곁에 짓는 일은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학교 측의 최소한의 의무다. 이 의무는 그 어떤 집단이거주의 앞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공생'을 빙자해 사익을 공익보다 앞세우며 학생들에게 궁극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일부 '업자'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학생과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나갈 것인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대처를 위해 이제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 '가능성' 아닌 현실 직시할 때

## 취재수첩

황상희  
(기자)



대학은 학문을 배우고 그 배움에 대해 소통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학'의 모습은 1년 전과 조금 달라졌다. 대형강의가 급격히 늘어 대형 강의실에는 약 140명의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서 앞만 보고 있다. 출석을 부르는 데만 10분이 소요된다.

마치 또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주입식교육을 받고 있는 듯했다. 발표는 생략하고 논술식 문제는 약속식 문제로 대체되는 상황에 대면하고 있다. 넓은 강의실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수업 분위기를 꿈꾸고 들어온 신입생들은 더 이상 대학의 환상을 강의실에서 찾을 수 없다.

행정·재정발전계획안에 따른 교육 구조조정이 시작된 결과다. 1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은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재정난으로 위기를 맞은 우리학교는 방학 동안 타개책을 내놓았다. 2월에 발표한 혁신안이 그것이다.

거버넌스 개편, 자율운영제도 개선, 강좌규모 개선 등 수익마련 방안을 비롯해 불필요한 예산 감축 방안은 혁신안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뤘다. 하지만 수익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당장 실행 가능한 방법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좌 수 축소,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관련예산 축소, 부서별 예산 삭감, 단과대학 별 자율운영예산 삭감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제 혁신안이 학교운영 개선에 가져다줄 '가능성'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어떠한 순간에도 놓쳐서는 안 될 대학의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안을 실행한다면 구성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교육부문의 예산 축소는 학생들이 곧바로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이번 학기 대형강의의 사안처럼 '통보' 식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될까 하는 부분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강좌 수 축소는 '전임교원비율의 확대를 통한 강의 만족도 제고'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만은 교육혁신안의 내용이 대학본부의 단방향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만족도 제고'와 거리가 먼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에도 대학본부 차원의 예산 조정 정책에 따라 중앙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삭감되면서 학술 DB일부가 구독 중단이 됐다.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과 관련 부서 간의 심의를 통해 정한 사항이지만 정작 사용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물론 학생 역시 대학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학교의 현실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은 그것을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제 혁신안이 학교운영 개선에 가져다줄 '가능성'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현실을 좀 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순간에도 놓쳐서는 안 될 대학의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안을 실행한다면 구성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재' 를 만드는 교육이란

## 세시봉

김주환  
(편집장)



개강 이후 두 주가 정신없이 흘러갔다. 대학본부 차원의 예산 조정과 관선 이사 파견 위기가 구성원 사이에서 고조됐고, 청소년노조는 용역업체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파업에 들어가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게 경희는 어수선하고도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학기의 시작을 맞았다.

그런데 시끄러운 우리학교만큼, 지구촌도 시끄러웠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했고, 이 일련의 과정은 전 세계에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미국과 EU를 필두로 한 서방 진영과 패권자로서 재기를 꿈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조심스런 견제구를 던지는 사이, 일본은 해병대를 신설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겠다고 팽창 야욕과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 정보화 시대의 대체 화폐이자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비트코인이 해킹당해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기도 했다. 도저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는, 인류사 전반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책략가와, 타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외교관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은 여기에 최적화돼 있는가.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때, 메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다 보니 '한국 기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며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있는 기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고, 어색한 정적이 이어지자 한 무례하면서도 당당한 중국 기자가 '제가 질문해도 되겠느냐'며 그 기회를 가로챘다. 이런 국제적 망신을 당한 원인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할 말은 많은데 영어회화에 자신이 없어 포기했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꺼려했거나. G20 회의가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언론사에서도 경향이 많고 영어에 자신이 있는 기자를 보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두 번째 유형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는 양적인 평가와 암기만을 강조하는 우리 교육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수업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이면 또 모를까, 중학생 정도만 되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하자니 '튀는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으로 찍힐 것이 두렵고, 교육과정도 쌍방향의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에 맞춰져 있기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용히 교무실을 찾는 경우를 더 자주 본 듯 하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결여된 교육은, 편협하고 수동적인 어른을 길러 낸다. 이전에 알던 교육과는 다른 '배움'에 대한 경험을 주는 것, 그것이 대학의 교양교육이 살려야 할 차별점이 아닐까.

비판적 사고 능력이 결여된 교육은, 편협하고 수동적인 어른을 길러 낸다. OECD 가입국 중 학업 성취도와 주당 공부 시간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하나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다행히 우리학교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와 상반되는, 오늘날에 필요한 인재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가 무언가를 질문하면 예의 기자회견장과 같은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곤 한다. 또한 시간강사에서 정교수를 막론하고, 수업 중 학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나 다름없는 교양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수업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이전에 알던 교육과는 다른 '배움'에 대한 경험을 주는 것, 그것이 대학의 교양교육이 살려야 할 차별점이 아닐까.

## 만평 틈도 없고 토론도 없는 대형강의

## 대형강의실 만석



## 학생자치회비, 명확한 사용기준 마련해야

## 와글와글 경희

윤초임  
(기자)



지난 주 DCinside 경희대 갤러리와 쿠파라자에는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자치회비 내역을 보았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지난해 9월 '총학회장 조모상의 유류비와 통행료' 명목으로 총 134,100원 사용, 같은 해 2월 43대 부총학회장 부친상 조의금으로 100,000원이 이용된 내역이 공개된 것이다.

논란은 커져 14일 국제캠 총학 페이스 북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6시간 만에 3,300명이 넘는 '좋

아요'가 클릭돼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나도 모르는 세에 내 돈이 모르는 사람의 조의금 함에 갔다', '부조로 50,000원 정도 나가는 건 몰라도 유류비에 통행료에 참...' 등의 댓글은 쉴 새 없이 달렸다.

이번 자치회비 사용은 총학에서 해명 한대로, 회칙상으로는 분명 문제가 없다. 다만 총학 학생들의 의견에 진정성 있는 답변대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의혹과 분노가 증폭됐다. 따라서 제46대 총학이 말한 대로 자치회비의 공명한 사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진의를 헤아려 소통하려는 자세다. 자치회비 논란이 학생회와 학생간 보다 열린 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발행·편집인 조인환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김주환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재민(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전임교원 시수 15시간까지 조정 강좌 수 축소... 교육여건 하락 불가피

행정·재정발전계획안-③ 교육 환경  
황상희 기자 up82@khu.ac.kr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행·재정발전안의 교육부문을 전임교원 책임시수 개선·강좌규모 조정과 적정 교원 규모 유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는 과다한 강좌 수와 교원 규모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불필요한 재정 지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학교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축소해왔다. 강좌 수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오면서 비전임교원의 강의가 늘어났다. 우리학교의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2011년 50.6%, 2012년 54.2%, 2013년, 53.6%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사립대학은 50% 이하를 유지해왔다. 또한 TF 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연간 전임교원 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주요대학의 책임시수 평균인 12.75 시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책임시수가 낮을뿐더러 책임시수 미달성시 교원에 대한 어떠한 패널티도 없는 상황이다.

## 책임시수 15시간으로 확대

이 역시 다른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책임시수 미달성시 급여 환수, 미달시수 차년도 이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전임교원 강의시수가 축소됨에 따라 비전임교원 강좌가 증가해 학생의 강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점이 지적됐다. 또한 책임시수가 축소됐지만 기대하던 바와 달리 연구성과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TF는 책임시수·강좌규모 개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확대와 강좌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임시수 조정은 정교수급 책임시수 분리운영과 보직교원 시수 감면 축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의만을 전담하는 정교수와 강의와 연구를 동시에 전담하는 정교수의 책임시수가 각각 15시간 12시간으로 나뉜다.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 까지 정교수급 교원의 80%가 책임시수가 15시간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시수 미달성 교원에 대해 급여환수, 미달 시수 이월, 승진·재임용 및 업적평가 시 감점 부여 등의 패널티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의 동성호 의장은 “일괄적으로 책임시수를 늘리는 것은 재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비효율적이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강좌 수도 개선의 대상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 수 및 인원 변동 현황〉

		2013-1학기		2014-1학기	
		강의수	수강인원	강의수	수강인원
중핵교과	서울	81	3082	72	3147
	국제	80	3055	79	3155
	합	161	6137	151	6302
기초이수	서울	296	7440	235	7121
	국제	309	8152	262	8163
	합	605	15592	497	15284
배분이수	서울	87	5342	92	8473
	국제	92	4869	85	5320
	합	179	10211	177	13793
자유이수	서울	189	8640	150	7252
	국제	252	11470	201	11534
	합	441	20110	351	18786
전체강의	서울	699	25,864	596	27,408
	국제	734	27,546	628	28,172
	총합	1433	53,410	1224	55,580

이 됐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후마 강좌가 개설되면서 우리학교의 인지도 및 교육 수월성이 상승했으나 늘어난 강좌 수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저하와 공간 및 행·재정 부담을 높였다. 또한 현재 우리학교의 재학생 수 대비 연간 강좌 비율은 33.1%로 타 대학의 29.1%에 비해 높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약 1,000개의 강좌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 약 1,000개 강의 축소 계획

교원규모 최적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13년도를 기준 우리학교의 교원확보율은 103.55%다. 각 학과별 편제 및 정원조정 추진을 위한 교육부 요건에 따르면 전년도 교원확보율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2014년 교원확보율을 100%이상으로 만 유지하면 요건에 충족한다. 우리학교의 교원 확보율은 2011년 99.57%, 2012년과 2013년은 100% 이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체적인 강좌 규모 축소에 따라 비전임교원의 강좌 규모가 축소되면서 교원확보를 하라에 대비해 적정 규모의 전임교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비전임교원 강좌 축소를 반영한 최소 필요전임교원수는 1,448명이다. 따라서 1,2학기의 예상 퇴직 교원 수와 계약 만료 ES/IS 교원 수를 반영해 각 학기의 채용규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교무처에 따르면 현재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논

의 중에 있다. 강좌 수 또한 대폭 조정된다. 단기적으로는 후마니타스 개설 강좌를 약 400개 축소해 2016학년도 이후까지는 총 1,000개의 강좌가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교과목 개설기준 상황과 학사제도 강화를 시행함에 따라 강좌 수 조정과 불필요한 교육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2013-1학기 대비 서울캠퍼스 103개, 국제캠퍼스 105개 강좌가 축소돼 총 208개 강좌가 조정된 상황이다. 현재 발전안에 따른 예산 조정의 경우 후마를 비롯한 대학본부 부서들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조정 목표의 절반 정도만 달성한 상황이므로 올해 2학기에도 추가적인 강의 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 강좌 수 축소, 대형강의 문제 발생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양강의 규모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사무국장은 “재정악화가 대형강의 문제를 비롯한 교육여건 악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교육문제 실태여건 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축전, 스터디그룹 활동 등에 책정되었던 예산 역시 감축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제캠퍼스 후마 장수영계장은 “현재 세부적인 예산은 조정 과정에 있으나, 축소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임시이사회, 이사 3인 선임 총학, ‘총장선출 개혁’ 요구

3·11 임시이사회날 스케치  
윤초임 기자 chom@khu.ac.kr

관선이사 파견에 대한 우려로 떠들썩했던 지난 한 주, 다행히 11일 임시이사회에서 새롭게 이사 2명이 선출되고, 조인원 총장의 이사 연임이 결정돼 정상적인 이사회운영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선출된 일반이사직은 동아일렉콤 이건설 회장과 동서의학대학원 조여원 교수가 맡게 됐다. 임기는 4년이다. 지난 10일 오후까지만 해도 고황재단 재직이사는 8명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최소 인원인 7명보다 단 1명만이 더 많은 인원이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염재호 이사가 사퇴의사를 밝힌바 있고, 조인원 총장의 임기가 15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사선출이 안 될 경우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최악의 국면이 펼쳐질 수 있었다. 이런 이사회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인 것은 지난 10일 저녁 교육부로부터 자격심사가 진행 중이던 윤석인 개방이사에 대한 승인이 내려지면서부터였다. 덕분에 지난 11일 임시이사회는 재직이사 9명이 참석할 수 있었다. 7명이 참석해 반드시 만장일치를 이뤄야 이사선출이 가능했던 중전의 이사회와는 달리 일부의 반대 혹은 기권에도 이사선출이 가능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 당시 일부 교수가 공관 앞에서 이사들의 차량을 막고 내리게 하는 등의 소란이 있던 것을 감안해 많은 구성원이 이사회의 정상 진행에 힘을 모았다.

특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지난 10일 저녁부터 정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이사회의 정상화를 요구했으며, 11일에는 총학을 비롯해 임시이사회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직원노조, 총민주동맹 등이 공관 앞을 지켰다. 이런 과정 끝에 재직이사가 총 11명으로 늘게 되면서 차기 이사회로 넘겨진 개방이사 1명만 더 선출하면 고황재단 이사정원인 12명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이사회 직후 총장 명의로 배포된 이메일 서신에서 조 총장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재정 문제와 관련해 ‘총장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총장은 ‘총장으로서 실천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성원의 관심과 조언



지난 11일 총학을 비롯해 임시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직원노조, 총민주동맹회를 부각했다.

한편 이사회가 끝난 11일 오후 6시에는 총학이 주관한 ‘경희사냥, 그린라이트’가 경영대학 151호에서 진행됐다. 우리학교 임시회와 총장선출방식, 등록금과 교육여건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약 1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첫 순서였던 ‘이사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그동안 발생했던 이사회의 파행과정을 전하며, 그 배경에는 총장선거를 둘러싼 이권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1월 예정인 총장선출을 이사회에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택우(한의예 2014) 군은 “이사회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학생들 모두 이사회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른 대학처럼 총장을 구성원이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총장후보자를 구성원이 추천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다음으로 ‘등록금이 오르면 대형강의 없어질까?’라는 주제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동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한 학생의 사연이 소개됐다. 논의 결과 참석자 대부분은 교육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면 등록금 소액 인상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가 총 성원 86명 중 62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이날 확운위에서는 ‘총장선출제도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논의 끝에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평의원회 산하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서울부총장 공석 후임, 인선 중

안재욱 서울부총장이 지난 4일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보직 해임됐다. 현재 추가 인선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이유로는 3.7% 등록금 인상안 제시로 인한 국가장학금 제2유형 신청 논란과 학내 구성원의 반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인다.

# 교수연대, “‘총장 사과’는 진일보한 변화”

이정우 기자 cyanizm@khu.ac.kr  
지난 14일, 교수연대통신(통신) 제7호가 발송됐다. 이번 통신은 지난 11일, 조인원 총장이 전 구성원에게 보낸 사과문에 대한 의사표명으로 보인다. 해당 사과문에서 조 총장은 “우리학교가 현재 처한 재정행정 문제, 의사결정의 차질, 미흡한 학내 소통을 언급하며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수연대는 이번 통신을 통해 “총장의 공식 사과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난 1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2명의 이사가 선임된 점, 총장의 이사 연임 및 개방이사의 승인도 이뤄진 점을 들어 “우리학교 범인 이사회에 대한 우려감을 씻어 다행”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총장의 사과문에서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한 “교수연대가 임의기구인 이상, 여론을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는다. 교수연대가 총장에게 사과문을 통해 “위기를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든지 그 실행에 협조하고 기다려줄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연대 최상진 공동대표는 전화 인

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발표된 재정행정 계획안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길 바라며 이외에도 SPACE21 2016년 내 이행과 같은 부분은 꼭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한 “교수연대가 임의기구인 이상, 여론을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는다. 교수연대가 총장에게 사과문을 통해 “위기를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든지 그 실행에 협조하고 기다려줄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연대 최상진 공동대표는 전화 인

## 2014-1학기 통합고시반 선발공고

[5급(기술, 행정, 외무), 변리사, 공인회계사, 7급공무원반정]

취업진로지원처에서는 국제캠퍼스 통합고시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는 학생  
 ① 5급(기술, 행정, 외무), 변리사, 공인회계사, 7급공무원 준비생 ② 경희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단,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③ 평균평점 3.0 이상 ④ 토익 700점 이상(토플 575점, 토익CBT 217점, 토익BT 82점 이상, 5급(외무) 제출된 영어점수 반영), [7급공무원반은 영어점수 제외] ⑤ 진로상담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선발인원 : 0명
3. 지원내용 - 가. 사설지원 ① 위치 : 예지원 승관 B동 4층 및 5층 ② 시설 : 공부방(32인), 기숙사(31인), 스터디룸, 인터넷 강의실, 휴게실, 자료실 및 전산실 등  
 나. 장학지원 ① 합격자 장학금 : 1차시험 합격자는 1년간 등록금 면제, 최종합격자는 졸업시까지 등록금 면제 ※ 기타 지급관련 세부사항은 경희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름 ※ 7급공무원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다. 학습지원 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특강비 지원 ② 시험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제출서류 : 지원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표
5. 제출처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학생회관 1층)
6. 지원서 접수기간 : 2014. 3. 17(월) ~ 3. 25(화) 09:30 ~ 17:00
7. 전형방법 : 1) 필기고사 : 2014. 3. 28(금) 17:00 멀티미디어교육관 B204호  
 - 5급(기술, 행정, 외무) : PSAT(영어능력,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20문항)  
 - 변 리 사 : 민법개론,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각 20문항  
 - 공인회계사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각 20문항  
 - 7급 공무원 : 국어, 영어, 한국사 각 20문항  
 2) 면접 : 2014. 4. 1(화) 16:00(필기고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
8. 합격자 발표 : 2014. 4. 2(수) 12:00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9. 고시반 입학예정일 : 2014. 4. 4(금) 09:00 예지원 고시반반장추첨 및 OT(실사) 방배정후 입주
10. 문의 :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전화031-201-3061 이메일) gosi@khu.ac.kr 홈페이지) http://career.khu.ac.kr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보도



신축기숙사에는 남학생 51명과 여학생 73명이 각각 입주 완료했다

# 124명 새 보금자리, 경인지역이 60%

## ‘행복 기숙사’ 입주 완료

윤초임 기자 chom@khu.ac.kr

【서울】개강과 함께 신축 행복기숙사가 문을 열었다. 이번에 새로 지은 행복기숙사는 총 두 개로, 농촌경제진흥원 옆 대로변에 건립된 남학생 기숙사(회기동 기숙사)에는 51명이, 약학대학 옆에 위치한 여학생 기숙사(이문동 기숙사)에는 73명이 입주했다. 사생선발 당시 약 300명이 지원해 각각 여학생 3:1, 남학생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대학생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 2012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현재 건립된 2개동 외에 SPACE21 사업과 연계해 진행 중인 대운동장 기숙사도 행복기숙사 사업을 통해 지을 계획이다.

두 기숙사생 선발은 장애학생을 우선으로 저소득층학생, 기타소외계층학생순으로 이뤄졌으며, 이후 잔여실은 학부(과)별 성적순, 학교와 주소지의 거리순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특히 신청 자격 대상자로 기존 기숙사생 선발시 제외됐던 ‘경인’ 지역 학생도 포함돼 구성원의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저소득층학생, 기타소외계층 학생의 수용 인원은 전체 기숙사생의 15% 이상이었으며, 경인지역 학생의 수용률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월 6일 총학생회가 요구한 ‘경인지역 학생 30% 이상 수용 보장’ 인원을 훨씬 넘은 수치다. 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었던 장애학생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행복기숙사 김동준 행정계장은 “사생 선발은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장애 학생이 지원하면 즉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숙사비는 1인실이 월 24만 원, 2인실이 월 19만 원(수도광열비 개별부담)으로 기존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 평균인 34만 원보다 36% 이상 저렴한 액수다. 이는 국민주택기금(53%)과 사학진흥기금(37%) 등 저리의 공공기금과 우리학교 재원(10%)을 통해 신축한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 우리학교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공 기숙사 유한회사(SPC)’를 통해 행복기숙사를 운영하며, 기숙사비로 24년 동안 공공기금을 갚아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행복기숙사는 수용 인원이 적어 별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행복기숙사생은 삼의원생과 동일

한 조건인 2,500원에 삼의원 식당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체 홈페이지 개설은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복 기숙사 사업’에 선정된 다른 4개 대학 기숙사와 통합한 하나의 홈페이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기숙사에 대해 기숙사생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조인영(국어국문학과 2014) 양은 “카드키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구조라 보안이 특히 마음에 든다”며 “신축이라 시설도 쾌적하고 사감과 관리자 모두 친절해 한 식구가 된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준 행정계장은 “개강시기에 맞춰 급하게 기숙사운영을 준비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오히려 학생들이 만족해주는 분위기가 감사하다”며 “작은 문제들을 꾸준히 개선해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PACE21사업과 연계해 진행 중인 대운동장 기숙사에 대한 민원이 동대문구청에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측은 회기동발전협의회라는 회기동지역 임대업자들로 현재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기숙사축소와 공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급, 500원 인상된 6,200원 합의 11일 정상 근무 복귀, 대학 직접 협상이 ‘계기’

## 청소노동 임금협상 타결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대학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경희대분회가 지난 10일 협상 끝에 시급을 500원 인상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파업이 마무리됐다. 경희대분회 소속 분회원들은 지난 11일 6시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시작했다. 경희대분회 백영란 분회장은 “용역업체와 교섭하라고 방관하던 학교가 직접 협상에 나선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지지해준 구성원에게 감사드리고, 파업으로 미뤄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앞으로 용역업체 C&S 소속 파견노동자들은 시급 6,2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월 10만 4,500원이 인상된 것으로 시중노동임가

의 약 78%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식대도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2만원 올랐다. 연 2회 17만 원씩 지급하던 명절 상여금 역시 각 1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했다.

대학본부와 경희대분회 간 합의안은 용역업체와의 교섭을 강조하던 학교가 직접 나서고, 기존에 경희대분회가 주장하던 시중노동임가 80%인 6,340원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노조와 경희대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이 중재역할을 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 직원노조는 직접 대학본부와 서경지부 양 측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설득했고, 공대위는 대학본부에 학생들의 지지의사를 전하며 직접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했다.

공대위 우석현(정치외교학 2011) 군은 “우리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로 미래

의 노동자인 학생이 반드시 의견을 표 시했어야 한다”며 “학교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협의를 이룬 점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정인 대학본부와 경희대분회 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서경지부 소속 다른 분회의 대학 중 일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용역업체 대표단과의 최종 단체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2일 고려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경지부 측은 “대학들이 본분을 외면하고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희대분회 백영란 분회장은 “모든 분회가 함께 하는 만큼, 모두 같은 협상결과를 얻을 때까지 연대 하겠다”고 말했다.

서경지부와 용역업체 대표단 간의 단체협상은 17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 총학, 자치회비로 부의금 논란

## 사용 범위 두고 학생-총학 간 견해차 커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총학)이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 자치회비를 총학 임원의 경조사비, 유튜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되면서 학생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논란은 지난 10일 다시인사이드 경희대 갤러리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자치회비 내역을 보았다’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글의 내용은, 지난해 9월 김나래 전 총학생회장의 조모상을 이유로 유튜브 10만 원, 통행료 34,100원이 지출된 내역이었다. 해당 글은 이용자들의 높은 조회수와 추천으로 인해 일간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다음날인 11일, 우리학교 학생 커뮤니티 쿠플라자(KHUPLAZA)에는 2011년도 국제캠퍼스 총학 부회장을 지낸 강세별(한국어학 2006) 씨의 부친상 조의금 명목으로도 1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지난 14일 한 학생이 총학 페이스북 게시물에 “해당 지출 내역에 대해 해명하라”며 관련 내용을 올렸고, 논란은 글이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1,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또한 해당 글에 드러난 바 이외에도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총학이 ‘학교 인사 부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출하고, 9월에는 ‘추석 선물’로 77만 4천원을 지출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해당 글에 댓글로 즉각 반감을 표했다. 한 학생은 “개인적인 부의금을 왜 자치회비로 내느냐”며 “교통비와 유튜브는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학생들이 공감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학생은 “학칙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대다수 학생들이 문제시하는 사안이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 <논란이 된 지출 내역>

연월일	항목	지출액	분류
2월 15일	43대 부총 부친상 조의금	100,000	집지출
7월 16일	학교 인사 부의금	100,000	집지출
9월 6일	총학 회장 조모상 유튜브	100,000	활동비
9월 22일	총학 회장 조모상 통행료	34,100	활동비
	추석선물	774,000	단대지원금

일부 학생들의 우려와는 달리 부의금 지출의 경우 학칙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학 김나래 전 회장이 게시한 해명 글에 따르면 “자치회비를 통한 조의금 납부는 총학생회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횡령이 아니라 학운위에서 결정된 예산대로 집행했다”며 “조모상의 경우 개인적인 일로 비취질 수 있으나, 공식적인 업무 공백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조의금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세출예산의 ‘잡지출’ 항목으로 20만 원이 편성돼 집행됐다. 또한 통행료와 유튜브의 경우 사전 답사비 등으로 쓰이는 ‘활동비’로 분류됐다. 조의금 관련 예산이 미리 책정되어 있던 점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예산은 짤 때, 이전부터 잡지출 아래 조의금을 미리 대비용으로 편성해 왔고, 이를 집행한 것 뿐이다”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판단하기에 학생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9월 ‘추석 선물’ 명목으로 77만 4천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부총장님과 대학본부 관계자, 단과대 학생대표를 위한 선물이었다”며 “이는 ‘단대지원금’으로 분류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현직(46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명목이라면 자치회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확대운영위원회에서 18일 2014년도 자치회비 예결산을 인준할 예정이고, 가능한 한 빠르고 공정하게 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2013년도 총학생회 세출예산안 일부

집지출	711	집지출	조의금	200,000
			-	100,000
			소계	300,000
		집지출 소계		300,000
		집지출 합계		300,000

## 3월 셋째 주(3.17~3.21)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회사명	모집부서	일시	장소
ICN코스 미용교육원(인실) 프로그래밍 설명회	미국 화교 2명	3.17(월) 13:00~14:00 / 17:00~18:00 (2차)	철문로 2117호
CI 프로그래밍 채용설명회	식품인력관리, Food distribution(농노채취)영업SCM	3.17(월) 14:00~18:00	철문로 2117호 / 용역업체 1층
BGF리테일 채용설명회	영업관리, 전역기/특채/재정지원/상용운영	3.20(목) 10:00~18:00	철문로 1층 상담실
BGF리테일 채용설명회	영업관리, 전역기/특채/재정지원/상용운영	3.20(목) 15:00~17:00	충무로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사전 5분전까지 참석)  
 \* 기타 사항: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특강

회사명	특강 진행자	일시	장소	비고
자기소개서 특강(1차)	이희성 지원교수	3.17(월) 11:30~13:20	내오관 103호	2차 특강(3.24(월) / 3차 특강(3.31(월))
스타트업, 혁신자를 버리고서 차원 Startup 이야기	송성훈 Spooa CEO	3.17(월) 15:00~16:30	철문로 2117호	-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중앙정보시스템 연수신청 후 별도의 승인번호 없이 참석  
 \* 기타 사항: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특강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특강 종료 후 현장에서 발급, 배부

3.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담 내용

상담원명	컨설팅비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비밀번호 컨설팅비 4명	월~금 (각 컨설팅비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룸 354호~356호 제1관107-2호	* (별) 중앙정보시스템 - '수업/신청/상담, 해'에서 신청 (컨설팅비 별도,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단상담	이중구 교수(전직진 연구실/연구실/연구실, 연구실) 상담	월 18:30~19:30	내오관 103호	
On Line / Off Line상담	정진명 학생취업지원팀	상시	On Line(jobjong@khu.ac.kr) Off Line(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사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남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4. 온라인 취업설명회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회)

- 구성: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서류전형(기업분석자료, 합격자 자기소개서), 면접자료, 동영상 강의 등
- 이용방법: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job1.khu.ac.kr) 로그인-좌측 추천프로그램 메뉴-온라인 취업설명회 신청

5. 추천채용

회사명	추천인원	모집부서	약간/기타
신상통신	3명	수출영업 / 생산관리 / 특선영업	3.17(월) 13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ob@khu.ac.kr)  
 \* 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추천채용공지 참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서캠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철문로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 학부별 예산 자율성, 학문 특성화에도 일조

## 니혼대 학부별 자율운영제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우리학교가 자율운영제를 실시한지 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자율권은 한정적이고 자율운영예산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편성돼 여전히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우리신문은 니혼대 대학본부를 방문해 학부 중심 운영체제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에는 니혼대 예술학부를 방문해 학부중심의 운영체제를 통해 각 학문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살펴봤다.



니혼대 예술학부는 학부별 자율운영제를 통해 교육여건, 인프라조성에 투자했다

### 연재순서

- [1] 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어제와 오늘
- [2] 해외취재 - 학부별 자율성 높은 니혼대
  1. 재정융용 단과대학에 맡기다
  2. 학문의 특수성, 자율운영제에서 찾다
- [3] 국내 대학 자율운영제 현황
- [4] 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미래

대학의 기능 중 가장 중심은 단연 교육이다. 때문에 질 좋은 교육여건의 조성과 학생들의 올바른 학문관에 대학이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학교가 '자율운영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것 역시 개별 단과대학의 고유한 가치를 살리고, 각각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단과대학의 신속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이 부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학교의 자율운영제는 단과대학 차원의 '자율성'은 확보되기 어렵고, 대학본부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다.

이와 달리 우리보다 앞서 자율운영제를 실시한 니혼대의 경우 학부(우리학교의 단과대학) 중심 운영체제를 통해 단과대학별 학문특성화에 성공했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부터 학부가 주도해 단과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활용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정책 덕분이었다.

특히 니혼대의 단과대학별 재정운영은 '등록금 고지제'를 활용해 불확실성이나, 갑작스런 예산변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등록금 고지제는 입시과정에서 미리 학생들이 내야하는 등록금을 공지하는 제도다. 즉 입학 지원 시에 4년치 등록금을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니혼대 예술학부 서무과 하지메 히구

치(樋口 肇) 과장은 "학부 예산위원회를 통해 학부의 중·장기 계획을 고려해 등록금을 책정한다"며 "한 학생이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들 비용을 고려하고 등록금을 짚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니혼대 각 학부가 중장기 계획수립을 하는데 용이해지고, 각 학부의 특수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 니혼대 예술학부, 행정 지원으로 취업률 매년 상승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니혼대 학부가 각 학과별로 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부분에서도 눈에 띈다. 니혼대는 같은 단과대학 내에서도 학과마다 교육과정, 기자재 사용 등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학과별로 차등등록금을 시행한다. 다만 학문의 기본적인 형평성을 위

해 수업료, 방송설비자금 등은 동일하게 배분하고, 학과별 특성화와 관련된 실험실습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학문특성화를 강조해온 니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술학부다. 니혼대 예술학부는 방송학, 연극학, 영화학, 미술학, 음악학, 문예학, 디자인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과와 세부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학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술계열 학생들이 취업난을 비롯한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것과 달리 니혼대 예술학부는 일본 내에서 최고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배경에는 각 학과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행정 지원부터 취업상담까지 발 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대 예술학부의 경우는 서무과, 교무과, 회계과, 학생과, 관재과, 도서관사무과, 취업지도과, 연구사무과 등 다양한

행정조직을 편성·운영해 예술학부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취업 교육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원을 따로 편성해 직업상담사를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예술학부 도서관에 전문 사서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도 한다.

자체적인 취업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예술학부의 경우 관련 전공 취업이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초청해 합동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캠퍼스 전체에 기업 전체 리크루팅이 오는 방식과 달리, 학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기업을 초청하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예술학부의 2013년 취업률은 61%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2010년도에 전년 대비 4% 상승, 2011년도에 전년 대비 5.4%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학교 예술디자인대학의 취업률은 2013년 기준 31.9%에 불과하다.

설비 시설, 영화 제작 시설 등 실제 실습에 적합한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니혼대 예술학부 카즈타카 시미즈(영화학, 清水和貴) 교수는 "니혼대 영화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대학과 달리 영화 기획부터 촬영까지 다 해볼 수 있고, 옛날 필름 영화부터 디지털 영화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니혼대를 통해 본 학부 중심 운영체제는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성을 토대로 교육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점을 시사한다. 등록금 논의 과정에 단과대학별 입장이 반영되고, 학과별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각 학과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니혼대 예술학부 서무과 하지메 히구치 과장은 니혼대 학부 중심 운영 체제의 장점에 대해 "어느 대학이나 유사한 학문이 존재하고, 다른 대학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실무자의 신속한 판단을 바탕으로 각 학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세우기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 학부별 특수성 반영한 인프라 구축 "실무진 중심의 전략세우기 관건"

각 학부별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니혼대가 학부별로 여러지역에 흩어져있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모든 학부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 다만 각 도서관이 공유하는 자료를 두고, 각 학부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각 학문별 특색을 살린 고유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현재 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 법학전문도서관과 의학전문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특히 도서관 신속사안이 사라지고, 최근 학술DB구입예산도 깎여나가는 시점에서, 니혼대의 사례는 우리학교에 여러 의미를 제시한다.

도서관 외에도 니혼대 예술학부는 방송

대학의 취업률은 2013년 기준 31.9%에 불과하다. 도서관 외에도 니혼대 예술학부는 방송

(니혼대학교 예술학부 학과별 전·후기 등록금 현황) (단위: 엔)

학과	학비 등 등록금 (전·후기 연 2회 납입)					합계
	수업료	방송설비 자금	실험실습비	후원회비	교우회비	
사진학과 영화학과 [영상표현·이론] 방송학과			50,000			780,000 (770,000)
연극학과 [극작·기획제작]			35,000			765,000 (755,000)
영화학과 [감독·촬영·녹음]			75,000			805,000 (795,000)
영화학과 [연기] 연극학과 [연출·연기·장비·조영· 일본무용·서양무용]	510,000	200,000	40,000	10,000	10,000	770,000 (760,000)
미술학과 음악학과			60,000			790,000 (780,000)
문예학과			25,000			755,000 (745,000)
디자인학과			45,000			775,000 (765,000)

\* ( )안의 금액은 후기 등록금이다

# "학부 특성화를 위한 방안은 학부에서 전담해야"

## 인터뷰- 니혼대 예술학부 서무과 하지메 히구치 과장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Q. 니혼대는 자율운영제를 기반으로 학부를 운영한다. 직원 채용도 학부가 자율적으로 하는가?

A. 그렇다. 전공분야에 관련된 교육계획의 구축과 그것을 담당하는 교원 조직의 구조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계획도 학부에서 책정한다. 예외적으로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즉, 실질적으로 학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Q. 등록금 수입은 모두 학부에서 관리하나?

A. 그렇다. 학생은 본부가 아닌 학부 계좌로 등록금을 입금한다. 학부는 등록금 수입을 바탕으로 한 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한다.

Q. 학부마다 등록금이 다르다고 들었다. 학부 내 학과에도 등록금 액수의 차이가 있나?

A. 예술학부 내 8개 학과의 실험실습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등록금이 저마다 다르다. 한 학기 등록금이 학과마다 최대 5만엔(2013학년도 기준) 정도 차이가 있다.

Q. 학부 내부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

A. 우선 학부별로 예산위원회가 있어 회계과에서 짚 예산 현안을 심의한다. 이어서 집행위원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인

결정은 교수회에서 한다. 학생 등록금은 학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 학생이 4년 동안 학기에 낼 비용은 입학할 때 미리 공지하고 있다.

Q. 학부를 운영하는데 자율성이 보장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또한 대학본부의 필요성은 언제 느끼는가?

A. 자율성이 보장돼서 좋은 점은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 대학과 계속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을 통한 전략세우기가 관건이다. 예산운영에서의 자율성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대규모 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학부의 자급력으로는

제한이 있다. 건설비처럼 규모가 큰 재정은 학부 내에서 조달하지 못 할 때가 있

는데, 그럴 때는 본부에서 돈을 빌리기도 한다.

Q. 경희대학교 자율운영제에 대해 조언할 부분이 있다면?

A. 사고방식의 전환이 핵심이다. 예산운영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을 고집한다면 자율운영제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학부가 특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해당 학부가 전담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학부의 재정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운영제'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주환 기자

칼럼



이현호  
홍익대 건축학 교수

※필자소개: 이현호 교수는 우리학교 SPACE21의 대표건축가로 키아즈머스를 공동설립했다. 현재 키아즈머스는 우리학교 SPACE21 등 교육시설과 주거공간, 그리고 다양한 상업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공간과 건축 ②

연재순서

1회: '시간'의 건축

2회: '시'가 있는 건축

3회: '도시'를 생각하는 건축

# 다름에 대한 존중과 공감의 특별함을 만든다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건축은 예술인가하는 질문이다. 이 당연한 의미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하는 이유는 건축이 예술이냐 기술이냐의 문제보다 건축가의 윤리적인 문제, 예술가로서의 자세는 다른 전문가들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다. 아름다움과 사랑, 신, 법칙과 같은 영원하고 불멸의 가치에 대한 추구는 유한한 존재로서 가장 인간적인 가치이며, 아름다움이 없고, 사랑이, 신이 필요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 건축이 최고의 예술이고 위대한 이유는 시간을 이겨내기 때문이고, 삶과 역사를 품고 가장 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신문에서 한 원로 건축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그는 기자의 “건축은 예술인가?”하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지르며 “건축은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건강하게 쓰기 위한 것”이라며 “주객이 전도된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즘 건축들의 지나친 개성과 인상을 본질에서 떨어진 껍데기 뿐인 건축물들로 개탄을 했다. 최근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서울시 신청사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랜드마크적인 요구들이 반영된 건축 경향에 대한 원로의 개탄이었다.

건축이 최고의 예술인 이유  
시간을 이겨내기 때문

지난해에 방한한 한 유명한 건축가는 인터뷰에서 “건축은 최상위의 예술이다. 단지 주거지(shelter)나 비즈니스 타워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간 그 자체가 우리가 점유한 조각이다. 공간과 조각, 예술의 경계가 없다. 같이 있는 거다. 이 공간도 밖에서 보면 조각 같지만 들어오는 순간 공간이 되는 것이다. 건축은 조각, 공간, 예술을 융합한다”고 하고, “뉴욕·LA·상하이·토론토 등을 뒤덮은 현대(modern) 건축물은 너무 따분(banal)하다. 나는 그런 것들을 ‘건축’이라고 안 부른다. 느낌(feeling), 열정(passion), 사랑(love) 같은 요소가 빠져

있다”고 말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앞에 인용한 원로 건축가의 인간을 위한 기능과 안락을 제공해야하는 건축의 역할과 도시적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건축적 태도에 대한 고언에는 동의하지만, 건축가가 표현해내고 싶은 감성과 개성이 지양해야하거나, 주객의 문제처럼 부차적인 문제인가 하는데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건축가들의 경직된 근대건축에 대한 집착과 정형화된 사고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와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열려있지 않고, 이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공감의 깊이가 줄어드는 사례들을 많이 경험한다.

건축가,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을  
위한 문화와 역사 이해해야

건축가는 멀리 떨어져서 보고, 싫증나면 안보고 치울수 있는 조각작품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하고, 한 도시의 역사를 담아야하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다. 따라서 편안함과 건강함을 주기 위하여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건축은 과학과 기술이고, 인간공학, 재료공학, 구조역학, 환경공학이며 심리학이다. 하지만 또 건축가는 그 곳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곳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를 배워야 한다.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으로서 건축 또한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고전의 사회를 지나 계몽과 근대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예술가의 작품으로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기 시작했다. 그 예술가의 새로운 과학 기술적 소양과 이해로부터 새로운 건축이 태동되기 시작했고, 문화적 역사적 이해로 부터 문법의 발전과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음악에서도 고전의 시기 바하가 노래한 감성과 낭만주의의 주관적이고 격정이 들어간 쇼팽의 감성이 다르고, 한 민족의 구성진 가락과 토속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이나 지역과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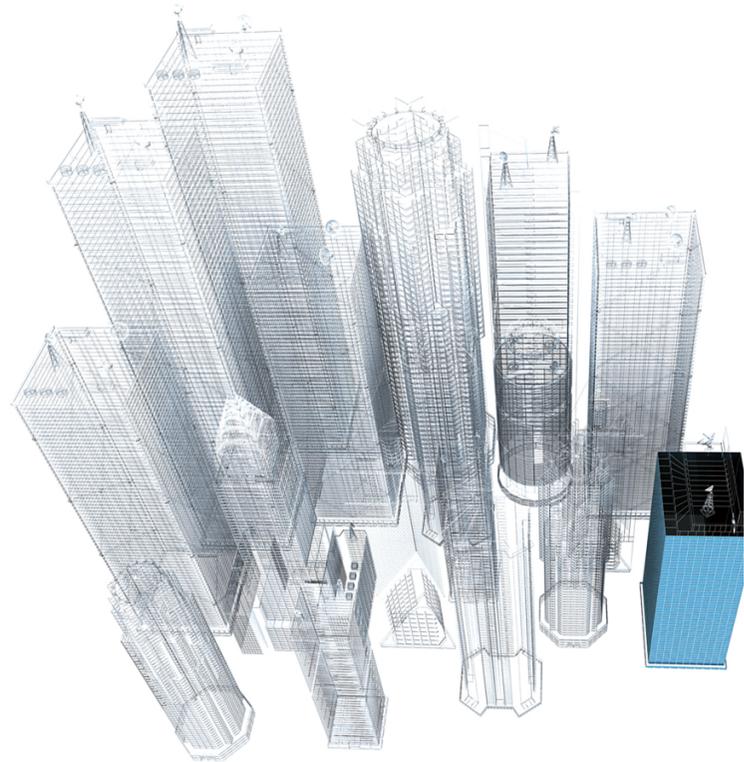
세계화 이후 많은 해외의 건축가들이 우리나라에 작품을 하고 있고, 나도 해외에서 건축물을 설계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내가 살고 있지 않는 땅에, 그 곳의 사람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의 냄새를 맡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않고 구글 어스를 통해 본 대지에 자신의 정형화된 디자인을 얹어 파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내가 경험한 모든 도시는 자신만의 역사를 갖고 있고, 내가 경험한 모든 건축주는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고, 내가 집을 짓기 위하여 밟아본 모든 대지는 자신만의 고유한 흙의 냄새와 바람, 특별한 감성의 소재를 갖고 있었다. 어느 땅에 어떤 집을 그리기 위해, 나의 시를 쓰기 이전에 그 땅의 시가 이미 있었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시가 이미 있었고, 내가 지은 집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그들만의 시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건축의 '시'를 특별하게 하는 원동력,  
정형화에선 찾을 수 없다

테헤란로의 빌딩 건축물이 대학의 캠퍼스를 채울 필요가 없고, 전주의 한옥마을이 있어 전주에 가고 싶지는 것처럼, 내가 졸업한 모교에도 졸업식에 배경으로 담을 수 있는 평화의 전당과 같은 건축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름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그 곳에 가는 의미를 더 갖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카고와 서울과 상하이가 다 똑같다면 굳이 여행을 하고 싶을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사람과 땅의 다름에 대한 존중과 공감하려는 노력, 이러한 대상에 대한 건축가의 애정과 열정이 그 자신의 시를 더욱 특별하게 하고,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건축가는 한 도시의 역사를 담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다

“다름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그 곳에 가는 의미를 더 갖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카고와 서울과 상하이가 다 똑같다면 굳이 여행을 하고 싶을 것 같지 않다.”

교양리포트② 배분이수  
우주 : 빅뱅에서 인간까지

## 우주 : 인생 향로의 나침판



장민환  
우주과학과 교수

인간이 미약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 제도권에서 살아오며 길들여져 당연시되던 껍질이 깨지며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혼란이 야말로 인간 사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우주: 빅뱅에서 인간까지’는 배분이수 교과의 제2영역인 ‘자연, 우주, 물질, 기술’에 속해 있다. 이 영역의 교과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적인 주제들을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인문사회적인 성찰의 단초를 제공하는 학제적 교양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명한 행성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생전에 수많은 강연과 저서들을 통해 “인간 중심에서 우주를 보지 말고 우주에서 인간을 보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는 내가 마지막 강의 시간에 마무리를 하며 어김없이 소개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사회와 관습이라는 틀에 갇혀 인간의 객관적 본질을 간과하고, 근시안적인 욕구와 감정에 시간을 허비하다 뒤늦은 깨달음에 의미 없는 자책을 되풀이하곤 한다.

5대양 6대주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 이 복잡하고 거대해 보이는 세상은, 실제로는 사막과 해변의 모래알 수 보다 많은 별들 중의 하나인 태양,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 중의 작은 하나인 지구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고작 100년을 넘기기 힘들니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얼마나 왜소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강의 중에 자주 얘기하는 대로 ‘우주 구석에 있는, 티끌보다 작은 지구 위의, 바이러스보다 작은 인간’이다. 땅의 역사를 설명한 《살아있는 지구의 역사》에서 저자인 리처드 포티는 ‘바다



인간의 중심에서 우주를 볼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인간을 보면 많은 것이 달라 보인다

가 낮아지고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시기에 크게 증가한 진드기와 같은 인류는 자신에게 맞는 겸손함을 더 갖춰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간빙기에 접어들어 수천 년 동안에 문명을 꽃 피우고 있는 인류의 여정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세계의 지성으로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등장한 운 좋은(?) 동물일 뿐이지 진화의 정점에서 서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만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만물 모두가 친구가 된다.

‘우주: 빅뱅에서 인간까지’ 강좌는 우주의 이해를 통해 인간의 시공적 위치를 가능하고, 인간이 무한한 우주의 미미한 존재라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만종 생물종의 한 종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인식을 체득해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의 단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다. 강의는 우주의 형성과 진화를 비롯해, 지구를 비롯한 여러 천체들과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 등의 주제들을 다루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시청각 교재를 적절히 활용해 진행한다. 또한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 우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별자리를 관측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존재의 객관적 위치를 이해하게 된다.

수강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강의의 들으며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이 강의가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일깨워 줘서, 자신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으로 조금씩 돌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는 말도 들었다.

인간이 미약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 제도권에서 살아오며 길들여져 당연시되던 껍질이 깨지며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혼란이 야말로 인간 사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회에 나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학생들에게 ‘우주는 인생 향로의 나침판’이라며 강의를 맺는다. 인간 중심에서 우주를 볼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인간을 보면 많은 것이 달라 보인다.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도 규모를 줄여 작지만 강한 대학들이 전국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 대학 구조개혁 전면 재고돼야

대학을 생각한다 ③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KHEI)  
연구원



지난 1월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만 명의 대입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계획이 발표되자 대학, 특히 지방대학들의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을 통해 약 11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그런데 감축한 정원의 83%가 지방대학에서 감축됐을 만큼 편중이 심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비중은 오히려 33.6%에서 37.0%로 확대됐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이 추진되면 지방대학은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존의 평가는 지방대학에 불리한 지표위주였으나, 이번 평가는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 정성평가 등을 포함해 지방대학이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성지표로 예를 든 대학발전계획, 학사운영, 사회공헌 등은 객관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지방대학이 정성지표를 통해 수도권 대학과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량지표 차이를 뛰어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원 감축 및 퇴출은 또다시 지방대학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후자는 대학 평가를 통한 지방대학의 정원감축과 퇴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한다. 최근 들어 부정·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지방대학들이 많은 것도 이런 여론을 키우고 있다. 또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극심한 영향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양적 팽창 진원지는 수도권 대학이다. 2002년 이후 지방대학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수도권 대학의 학생 수는 2002년 대비 2012년 8만 7천명이 늘었다. 더욱이 수도권 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월등히 뛰어나다고도 볼 수 없다. 교원, 교지·교사, 도서관 좌석 수 등 교육여건 관련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수도권대학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무턱대고 지방대학 정원부터 감축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다.

교육부는 대학을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정원 감축과 퇴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대

학이 상위 단계에 포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들 대학은 교육부의 구조조정으로 대학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학 특성화 사업'을 보면, 사업단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표는 여전히 충원율과 취업률이다. 취업률이 낮거나 학생 충원이 어려운 소위 '비인기 학교'나 '기초학문'은 통·폐합 또는 폐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대학의 일부 전공·학문으로 꾸러진 사업단만을 집중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 대다수는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교육부 구조조정은 수도권·지방대학 가릴 것 없이 학문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개별 대학의 독자적 경쟁력보다는 대학 서열과 그에 따른 규모 팽창을 통해 성장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할 때 비교되는 선진국 대학들 중에 우리나라만큼 학생 수 규모가 큰 대학은 거의 없다. 대학들이 교육 및 연구활동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에 기대어 특성 없는 종합화를 추진하고 학생 수를 늘려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유지해 온 결과다.

현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설사 수도권 주요 대학이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곧 대학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교육부 구조조정과 관련한 또 다른 우려는 대학 내 민주주의와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평가에 따른 경쟁논리 때문에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이나 논쟁이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대학 구성원의 자치활동이나 대학 언론 활동 역시 크게 제약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최근 들어 다양한 사례로 확인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곧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 전반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기형적 사립대학 체제를 국가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체제로 변화시키고, 교육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도 규모를 줄여 작지만 강한 대학들이 전국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과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 참여마당

홍재영  
영어학 2013



## 대학생의 소비 생활에 대한 고찰

새 학기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껏 멋을 낸 대학생들이 여럿 보인다. 각종 브랜드의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착용한 이들이 부지기수다. 비단 패션뿐만이 아니다. 학교 주변 유명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살펴보면 많은 자리를 대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소비 생활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입보다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자발적 성격을 지닌 능동적 소비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동적 소비다. 전자의 경향을 지닌 대학생들은 일종의 '상승 욕구'를 보인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상층계급의 소비를 모방하도록 한다. 반면, 후자는 주변에서의 자극으로 비롯된다. 그들 주변의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과소비가 필수인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이야기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애당초 그들에게는 소위 명품을 즐길 수 있을만한 경제력이 없다. 하지만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이 걸로 보기에 자신보다 더욱 나은 생활을 한다고 느낀다면, 부담이 되더라도 그들과 같아 보이기 위해 과소비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유행이나 사회 분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소비를 한다는 것은 결코 다른 누군가에게 뒤쳐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알고 절제하는 방법을 깨우쳐 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 발걸음을 디디며 사회에 잘 녹아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들과의 만남, 취업 준비 단계, 미디어의 영향 등을 통해 세련된 스타일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사회에서 도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소비를 유도시키는 것이다.

SNS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시킨다. SNS에서는 누군가 명품가방을 자랑하거나 값비싼 식사를 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그 내용을 보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모습이 누군가의 평상시 모습이라 착각하게 하며, 질투나 부러움과 같은 감정을 유발해 그들과 동일한 행동을 따라하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과소비는 가중된다.

대학생들이 불필요한 과소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고한 주체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생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소비를 한다는 것은 결코 다른 누군가에게 뒤쳐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알고 절제하는 방법을 깨우쳐 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들은 단순히 주변의 생각에만 따르는 수동적인 선택을 하며 살기보다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첫 걸음으로 대학생의 과소비를 극복해야만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문제는 우리를 얽어매고 부추기는 자본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이다. 천송이 립스틱을 바르면 천송이처럼 보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상품들의 속삭임을 거부하지 못한다. 자본이 뿌려대는 이미지의 환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시시포스의 노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니던 학교, 회사를 때려치고 산 속에 들어가 홀로 살거나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사회 전복을 부르짖는 혁명 투사로 변신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지난 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왔지만 별 효과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자본주의는 오히려 더 팽창하고 더 강해졌다.

독일의 사상가 벤야민은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자본주의의 환상을 내부로부터 해체하고 그 조각들을 재구성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야민은 자본주의 사회의 산책자를 자처한다. 산책자는 환상의 외부에서 환상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자본이 제시하는 환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들처럼 환상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도 아니다. 환상의 파노라마를 구성하는 이미지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각각의 이미지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마치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처럼 이미지들을 몽타주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다.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벤야민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완결되지 못했



벤야민은 자본주의 사회의 산책자를 자처하며 자본이 제시하는 환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독일의 사상가 벤야민은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자본주의의 환상을 내부로부터 해체하고 그 조각들을 재구성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고 방대한 자료들과 미완성의 원고만 남았다. 그렇지만 그가 제시한 방법은 후기 푸코와 아감벤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서구 지식계의 '벤야민 르네상스'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이었다.

### 채용설명회 & 채용상담

\*본회의 변경사항은 회사가 추가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본회의 모집공고문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참조  
\*본회의 문의 : 서울·수도권지역: 02-2610-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기업명	일시	장소
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	3/12 (수) 14:00 - 16:00	공대 107호
글로벌이머	3/18 (화) 14:00 - 16:00	피스룸
대림산업	3/19 (수) 16:00 - 18:00	피스룸
삼성전자(LS사업부)	3/20 (목) 16:00 - 18:00	피스룸
두산그룹	3/28 (금) 15:00 - 16:30	피스룸

기업명	일시	장소
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	3/12 (수) 10:00 - 17:00	공대 2층 잡가게
OCT	3/13 (목) 10:00 - 17:00	공대 2층 잡가게
NHN엔터테인먼트	3/17 (월) 10:00 - 18:00	전정 CDC실
글로벌이머	3/18 (화) 10:00 - 17:00	도서관3층 로비
삼성전자(D5팀)	3/18 (화) 10:00 - 17:00	공대2층 잡가게 / 전정 CDC실
대림산업	3/19 (수) 10:00 - 17:00	도서관3층 로비
김연장	3/19 (수) 10:00 - 17:00	도서관3층 로비
아비행공사	3/26 (수) 10:00 - 17:00	취업진로지원처 3층 드림존
두산그룹	3/28 (금) 16:30 - 18:00	피스룸, 광세움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문화

# 캘리포니아 상공에 새겨진 '경희대학교'

스카이다이빙 퍼포먼스  
남성우(체육학 81) 동문가족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지난 1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우리학교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웅장하게 펼쳐졌다. 우리학교 체육대학 남성우(체육학 81) 동문이 아들 남기운(체육학 2012) 군, 딸 남서영(체육학 2014) 양과 함께 스카이다이빙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이다. 하늘에 '경희대학교'의 이름을 수놓은 동문가족을 만나 스카이다이빙 퍼포먼스를 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아버지는 체육학과 졸업생이면서 현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체육 교수이고, 두 자녀는 체육학과에 재학생인 '경희가족'이 있다. 이 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스포츠인 스카이다이빙을 통해 상공에서 우리학교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가족 모두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가족과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은 남 교수의 오랜 꿈이었다. 그는 30년 전 스카이다이빙에 입문한 이후로 '자녀가 태어나면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 다짐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 스키, 스쿠버다이빙 등 여러 운동을 같이 즐겨왔고, 막내인 딸이 스카이다이빙 훈련이 가능한 나이가 된 지난해에야 오랜 꿈을 이를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운동'인 스카이다이빙에 다함께 도전할 기회가 온 것이다.

##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가족이 함께 한 스카이다이빙

이 가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넘게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가족의 목표는 한국에서 미리 제작한 대형 현수막을 상공에서 펼쳐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실제로 남 교수는 10여 년 전 우리학교의 개교 55주년을 기념하는 깃발을 하늘에서 펼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운동 그 자체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싶었다"며 "목표가 있으니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13,500피트(지상으로부터 약 4km)에서 도전할 스카이다이빙. 그



미국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우리학교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가 쓰인 대형현수막이 펼쳐졌다

러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이탈해 초당 54m 정도의 속도로 자유낙하를 해야 했다.

무엇보다 세 명의 몸무게 차이로 떨어지는 속도가 저마다 달라, 각자 비행 자세를 달리해 레벨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수 없이 했다"며 "기상 여건이 양호할 경우 하루에 최대 17회까지 다이빙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현수막을 펼치는 순간에 발생하는 바람을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남서영 양이 현수막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 남다른 모교사랑 이색 도전으로 표현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협동심을 발휘해 퍼포먼스를 성공시켰다. 그 절정에는 '벅차오르는 감동'과 '뿌듯함'이 있었다. 남 양은 "흔히들 스카이다

이빙은 익스트림 스포츠로 생각해 남성들의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연해 낙하 자세를 잡는데 더 유리한 점이 있고 이 덕분에 여유롭게 비행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남기운 군은 "남들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운동'을 통해 남다른 경험을 한 것이 매

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와 이색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남 교수의 가족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국내에 스카이다이빙을 전파하고 싶다는 그들은 공식적인 스카이다이빙 대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두 자녀는 USPA(미국낙하산협회) C-라이선스(200회 이상 점프한 상급 스

카이다이버)를 뒀고, 이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코치자격증도 획득했다.

## "하늘에서 하는 스포츠 구성원과도 함께 하고싶다"

이에 남 교수는 "경희대학교의 이름을 걸고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며 "아직 우리학교 체육대학은 하늘을 이용한 스포츠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만큼 대학 구성원과 함께 도전하는 기회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에게는 또 다른 목표도 있다. 바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횡단 수영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 명은 트라이애슬론-철인삼종 대회 출전 5년의 경력이 있기에, 올해 안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또한 경희대학교 동문가족 이름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아버지의 남다른 모교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우리학교로 진학을 결심한 두 자녀, 그리고 경희사람을 몸소 실천하는 남 교수의 다음 도전을 응원한다.



KYUNG HEE UNIVERSITY

# Global Collaborative 2014 Summer Program

"2014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은 해외 유수대학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특화된 강의와 다양한 교과의 특별과정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기간 2014. 06. 30 ~ 2014. 07. 24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5개 강의 (GC 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4. 03. 24 ~ 2014. 04. 30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4월30일까지 조기등록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 참조)
- 문의 미래문명원 Tel : 02-961-0995 E-mail : summer@khu.ac.kr 홈페이지 : http://gc.khu.ac.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hugc